

106.자동차 테이프 부착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손목터널증후군

성별	여	나이	54세	직종	수송용기기제기구 제조업(갑)	작업관련성	높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서OO은 1988년 04월 (주)OO 자동차의 컨테이너부에 입사하여 1993년까지 근무하다 테이프 부착작업을 하던 중 손목 부위의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서OO은 입사 전에는 가사일만 해오다가 1988년 4월에 입사하여 1993년 11월까지, 1일 10시간 동안 컨테이너 도장작업, 컨테이너 내부 청소작업 시행, 1993년 12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중기변속부에서 작업장 바닥청소 업무를 하였으며 당시에는 통증 호소가 없었다. 1997년 8월에서 2003년 8월까지 반광장 블랙테이프 부착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주요 공정으로는 불량 마스킹, 튜튼칼라 마스킹, 바닥 기름 청소, 스틸 컨테이너 작업 등이었으며, 1일 10시간 동안 콘베이어 위에서 13대/hour 정도, 하루 약 130대를 처리하였다고 하면서 하루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 등을 사용해 같은 동작을 반복하였다고 한다. 서OO의 경우 신장이 타 근로자에 비해 커서 마스킹 작업시 차체 상단 마스킹 작업과 도어 마스킹 작업을 주로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해당 작업들은 왼손의 손목을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이 많았다. 이는 한손으로 마스킹용 비닐 및 종이 등 여러 자재를 동시에 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이프를 왼손에 걸고 작업하고 있어 손목의 굽힘각도 및 비틀림 동작시 부자연스런 자세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의학적 소견: 06년 2월경 부착 작업을 하던 중 왼쪽 팔목에 심한 통증을 느껴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받았다.

4. 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 서OO은

- ① 수근관증후군으로 확진되어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로,
- ② 실제로 다빈도의 손과 손목의 반복 작업 및 손목 굴곡이 요구되는 작업 공정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 ③ 원인 질환이 될 수 있는 뚜렷한 질병을 밝힐 수 없으나 근골격계질환으로 다수 외래 치료를 받아왔고
- ④ 이 질병의 호발군인 50대의 여성으로서 가사활동에는 장기간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서OO의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에 의한 반복작업이 이 질병 발생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